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DAIL COMMUNITY

# 다일공동체

아름다운 소망  
아름다운 약속  
다일 유산기부서약 1호

- 조용근 회장



커버스토리

## 아름다운 소망, 아름다운 약속 다일 유산기부서약 1호 조용근 회장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은 지속적으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이 시대의 '나눔 전도사'입니다.

1966년 국세청 9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납세자에게 감동을 주는 공직자로 '감동을 주는 국세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38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퇴임한 조용근 회장은 퇴임 이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과 섬김의 사역에 매진하며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 명예본부장, 중증장애인을 돕는 석성 1만 사랑회 이사장, 살림동산학원 이사장, 석성장학재단 이사장, 천안함재단 이사장으로 나눔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녀교육은 아버지가 모범을 보이면 저절로 됩니다. 특히 아이에게 자긍심을 높여주는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긍심을 높여주기에는 남을 돕는 봉사활동이

나 기부만한 게 없어요. 장학재단을 만들면 금상첨화지요. 대부분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애쓰는데 그게 자녀를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물려주기보다 '정신'을 물려주어야죠. 저는 장학재단을 만들어 대대로 대물림하려고 합니다."라며 재산상속의 소신을 밝히기도 한 조용근 회장은 지난 7월 7일에 있었던 다일 후원의 밤 자리에서 다일 유산기부의 첫 번째 서약자로 약정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위에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분들을 보면 자녀들이 감사도 고마움도 없고 서로 싸움만 하고 부모에게 불평만 더 했다"고 전하며 반드시 사회 공헌을 위하여 다일공동체 같은 사회복지 단체에 기부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나눔과 섬김에 솔선수범하는 조용근 회장은 나눔의 귀감이라 불려도 과찬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 Contents

- 04      우간다의 새로운 햇살, 다일 In Uganda
  - 08      대청밥: 대한민국 청소년 밥퍼, 밥퍼하며 성장하는 청소년들
  - 12      Stony Brook School in Cambodia
  - 20      기적의 밥퍼 700만 그릇
  - 24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 25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 26      밥퍼는 000이다
  - 28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31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신규 후원들께 감사합니다.
  - 34      후원안내
  - 37      후원 캠페인-만원의 행복
-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편집위원 | 김도한, 이가영, 최가람, Byeol Ellie Choi

영문번역 | 이예형

영문감수 | Byron Chun

사진 | 김도한

디자인,인쇄 | 틀니 디자인 어소시에이츠

발행일 | 2014년 7월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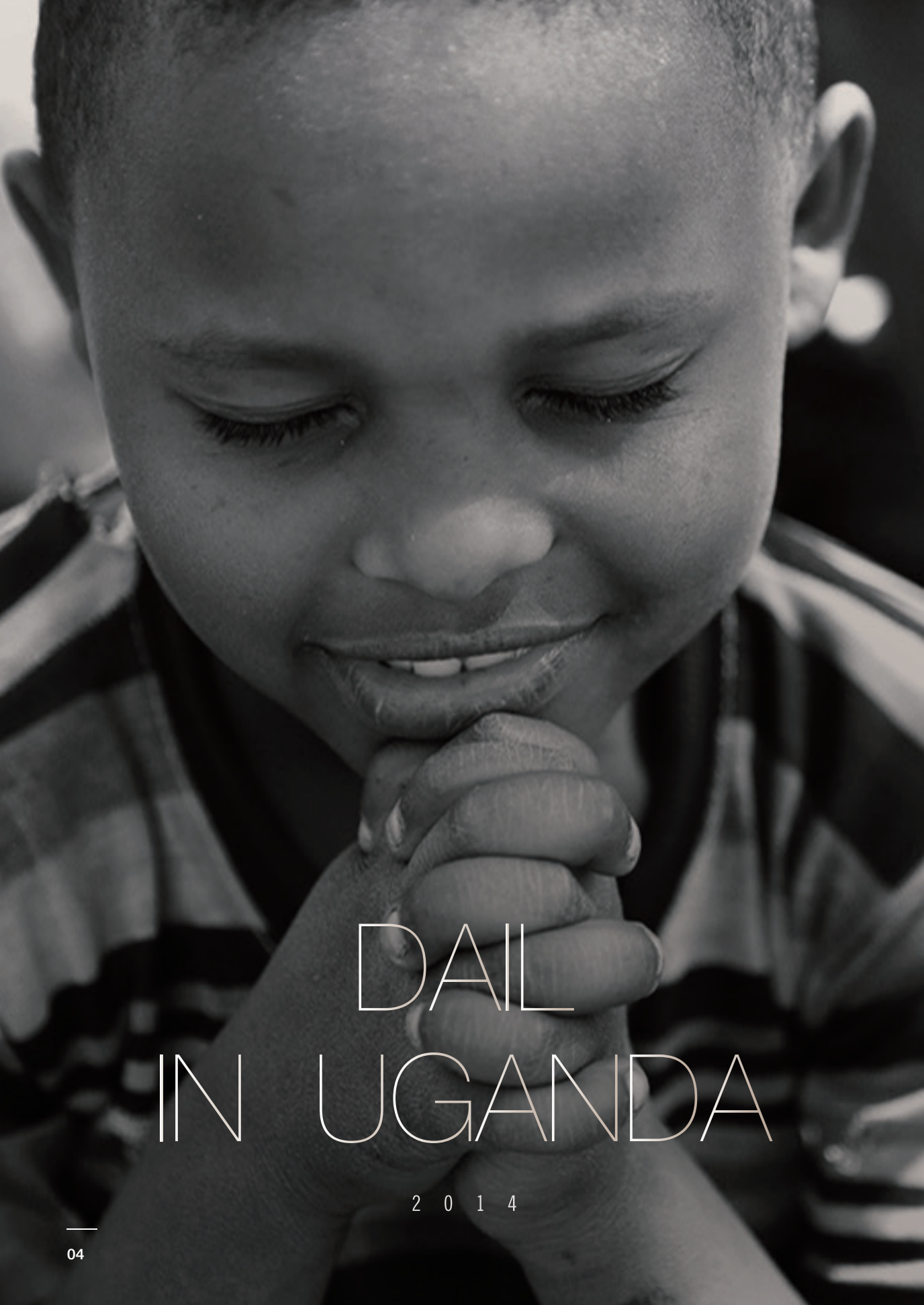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전화 | 02,2212,8004

팩스 | 02,2243,8005

후원문의 및 신청 | 02,2212,8004

[www.dail.org](http://www.dail.org)



DAIL  
IN UGANDA

2 0 1 4

##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소개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명명되는 우간다는 빅토리아 호수의 풍부한 수자원과 자연의 신비를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르웬조리 산(Mt. Ruwenzori), 야생동물이 뛰어다니는 대평원 등 개발이 되지 않아 오히려 빛을 발하는 빼어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다. 영화 몬도가네와 타잔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며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여러 장소가 지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우간다의 국가 이미지는 과거 Idi Amin 대통령의 비인도적 독재정치와 무자비한 학살과 납치를 자행한 '신의 저항군(LRA)'로 인해 크게 왜곡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 산업은 농업으로서 특히 면화와 커피의 재배가 활성화 되어 있다.

영토 대부분은 해발고도 1,000 m 이상으로 적도 바로 아래이지만 기온은 연교차가 거의 없으며 수도 캄팔라의 연평균 기온은 21.9 °C입니다. 우간다는 사바나 기후로, 소림 지역이 많으며 머치슨폭포, 퀸 엘리자베스 등 2곳의 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호수와 강이 많으며 특히 케냐와 탄자니아 국경 지역에 위치한 빅토리아 호(Victoria Nyanza)는 면적 6만 9485km<sup>2</sup>, 최대 수심 82m, 호안선길이 3,440 km에 이르는 아프리카 제1의 호수이자 담수호로는 세계 제 2의 큰 호수이다. 그 밖에도 몇 개의 광대한 동물보호지구가 있으며, Jinja 지역의 나일강 레프팅, Kabale 지역의 고릴라 트레킹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책자인 Lonely Planet은 우간다를 2012년 최고의 방문지(Best Tourist Destination)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 1. 국기

검정색, 노란색, 빨간색 세 가지 색으로 구성된 여섯 개의 가로 줄무늬 바탕 가운데에 그려진 하얀색 원 안에는 우간다의 국조인 잿빛왕관두루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검정색은 아프리카 인을, 노란색은 빛나는 태양을, 빨간색은 아프리카의 형제애를 의미합니다.

### 2.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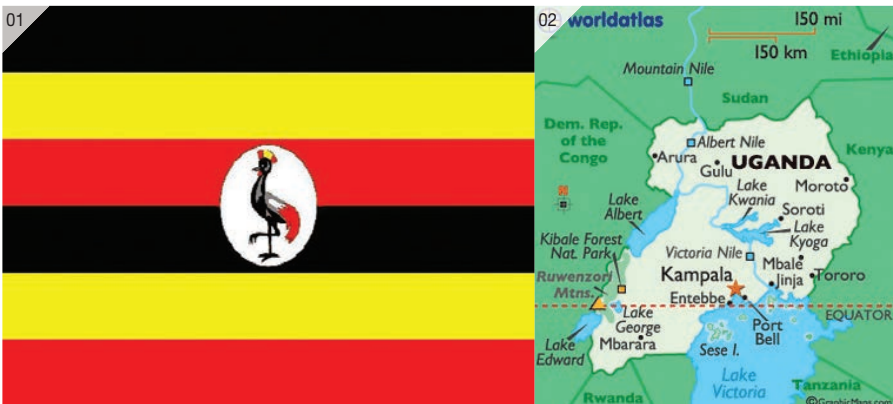
중부아프리카 내륙국으로 동쪽은 케냐, 서쪽은 콩고민주공화국, 남쪽은 르완다와 탄자니아, 북쪽은 남수단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모두 5개국과 접경).

### 3. 종교

카톨릭(41.9%), 개신교(35.9%), 이슬람(12.1%), 기타(10.1%)

### 4. 사회

1990년대 성인의 문맹률이 50%가 되자 대통령 무세베니는 교사들의 훈련과 교과목의 개발로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은 인접국가를 보다 잘 보급되어 있는 편입니다. 정부가 교육제도 전반을 관할하는데, 자원과 훈련 받은 인력의 부족, 국내 정치의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악화되었던 보건, 복지 서비스는 1980, 1990년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만연으로 심각한 보건상의 위기를 맞으면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AIDS와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고아들이 같은 고통을 호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01. 우간다 공화국 국기

02. 국가 및 수도 위치

## 김혜경 원장의 편지

저는 간호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이팅게일'같은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직업이라 여기며 꿈꾸었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룬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간호사로 근무하던 어느 날 감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졸업 후에는 임상목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전직이 간호사이니 당연히 병원목회를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나 봅니다.

평촌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기면서 신촌 세브란스병원의 원목실에서 1년 동안 임상목회훈련을 받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격리병실 문을 노크하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괜히 들어왔다"라는 후회와 자책이 밀려들 정도로 환자의 모습과 컴컴한 독방 분위기는 음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로 에이즈 감염 환자였는데 그는 이미 실명헌데다 척추신경 마비로 하반

신을 전혀 쓰지 못하는 지경의 처참한 물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4년 전 2000년도였는데 그 때만해도 에이즈는 공포와 저주의 죽음의 질병이라는 인식과 함께 간호사들도 그 방에는 단 하루 세 번 일회용 용기에 들어있는 식사를 던져주기 위해 출입할 따름이었고 그것도 마스크와 일회용 비닐장갑 낀 손으로 들어갔다가는 바로 뛰쳐나오곤 하였지요. 볼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일회용 도시락에 담겨있는 밥을 더듬어 먹고 침상에 누운 채 배변을 하여 그야말로 짐승우리간 만도 못한 처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책을 끼고 거룩한 척 들어선 나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다가 간단히 그의 요구 몇 가지를 도와주곤 도망치듯 그 방을 뛰쳐나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에이즈환자에게 빛진 자의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던 후 제 마음엔 내내 그 환자의 잔영이 돌덩이 같은 부담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청량리역 바닥에 쓰러져있는 함경도 할아버지를 만났던 사건으로 인해 지금의 밥퍼목사님이 되신 것처럼 제게도 이 일이 하나님의 또 한번의 부르심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남은여생을 에이즈환자나 그들이 남기고 떠난 어린 고아들을 위하여 빛을 갠으며 살아가리라 기도하였다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프리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간다는 적도 표지석이 새겨져 있는 적도의 땅이지만 해발 1300미터 고지대이어서 연평균 섭씨 22도 정도의 기후입니다. 연중 비가 자주 내리고 물이 많아 땅도 비옥하며 언덕과 나무가 많아 자연경관이 빼어난 나라입니다. 게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빅토리아 호수를 끼고 있어서 영국이 2차 세계대전 때 흑 패전하면 우간다로 나라를 옮기려고까지 생각했다는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리우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보내시기 위해 필리핀에서 5년간 선교사로 훈련시키셨고 좀 더 덥고 열악한 나라 캄보디아에서 1년을 더 훈련시키고 우간다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2014년 6월 2일은 제 인생의 또 한번 기록으로 남게 될 날입니다. 60세의 늦은(?) 나이로 우간다로 입성하였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가슴 설레는 기대로 제 심장은 마구 뛰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땅 우간다! 독재정권과 부정부패한 정부와 에이즈와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열악하고 가난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라 생각하니 종착역에 내려 내 집에 도착한 것 같은 평안함을 느낍니다. 저는 이 아프리카 대륙이 참 좋습니다. 이제 우간다에서 에이즈 환자들이 남기고 떠난 고아들을 돌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기에 더 기도하며,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 대한민국 청소년 밥퍼 (대.청.밥)

'Ask Innovation!'이라는 광고 카피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전 세계 사회-경제-교육 분야의 이슈는 혁신, 앞으로의 글로벌시대가 바라는 것은 상상력, 창의력을 넘어 혁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혁신(Innovation, 이노베이션)'이란 놀랍고 새로운 상상력과 효과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력을 융합하여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융합인재 '혁신가(Innovator, 이노베이터)'가 되는 방법에는 정답은 없지만, New 글로벌인재 'Innovator'로 성장하는데 있어 가장 빼놓지 말아야 하는 정신이 있죠! 나눔과 봉사의 정신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밥퍼 (대.청.밥)은 베트남 내의 한인청소년들에게 봉사의 장을 열어 주기 위한 "청소년 봉사 단체" 입니다.

현재 호치민에는 많은 한인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봉사단체와 여건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청소년들만을 위한 문화공간과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또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에서 활발하게 구제와 봉사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베트남 다일공동체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봉사단체"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베트남 지역의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베트남을 남의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베트남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밥을 퍼주는 사역부터, 도시락을 배달하고, 현지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을 청소하고, 청소년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문화공연 및 베트남 친구들에게 문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에 앞서서, 봉사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봉사에 대한 마음을 심어주고, 건강한 청소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위한 세미나와 강연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청.밥'의 주체는 청소년들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치위원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정해주고 시키는 봉사를 수동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봉사에 대한 마음을 배울 뿐 아니라, 자취위원으로, 또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리더십과 협동심, 자립심을 배우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된 봉사단체로서 봉사활동에 대한 증명이 분명합니다. 봉사 활동에 대한 배움과 보람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요구하는 봉사시간과 입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립 봉사 확인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최다빈 회장 편지

안녕하세요,

2014년도 대,청,밥(대한민국 청소년 밥퍼) 회장을 맡게 된 최다빈이라고 합니다. 이번 2014년도 대,청,밥 임원은 회장인 저를 포함해 부회장인 정지혜, 총무인 신유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이번 2014년에도 2013년과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리더라는 자리를 한 번도 해 본 적도 없고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또한, 베트남 사람들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베트남 문화와 예의에 대해 아는 것도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저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50여명 가량의 대,청,밥 회원들에게도 이번 2014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기도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활동하는 이번 한 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더 성실하고 진심으로 봉사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청,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대,청,밥 회장을 하면서 저의 목표는 학생들이 단순히 대학을 위해 봉사점수와 학교 서류를 위해 하는 활동이 아닌 진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주자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얼마나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회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봉사를 가는 곳의 사람들이 저보다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각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많은 고민과 힘든 환경이 있듯이 그들의 가난이라는 어려움이 그저 저희와 같은 한 가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과 동등한 시각 속에서 돕고 그들도 위로받고 저희도 위로받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2014년도 대,청,밥 회원들과 우리들의 활동을 위해 아낌 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청,밥 회장 최다빈 올림.

대,청,밥 회장  
최다빈



## 대.청.밥 회원들 소감

### 김병준

.....

앞치마를 입고 머리도 묶고 한 그릇 한 그릇 직접 어르신들에게 밥을 퍼 드렸습니다. 저희가 밥을 퍼 드리는 동안 몇몇 어르신들이 저희에게 오시면서 한국어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저희 가슴속에서 봉사라는 것이 단순히 몸으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같이 마음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딱 와 닿았습니다.

### 신유진

.....

아이들이 너무 예뻐 밥퍼 봉사를 자주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를 하기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봉사를 통하여 내가 좋은 집에서 태어났구나하는 생각이 들며 감사하게 되고 아이들을 도와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 김하림

.....

봉사 전에는 단지 아이들이 불쌍해서 도움을 주려고 찾아가는데 봉사 후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봉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 이현우

.....

밥을 퍼며 봉사에 참여했는데 봉사를 하다보니까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보람되고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 STONY BROOK SCHOOL IN CAMBODIA

DAIL COMMUNITY



## Stony Brook in Cambodia 최별

캄보디아에서 보낸 지난주는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13명의 스톤브룩 고등학교에서 온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지난 6월,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비전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을 통하여 servant leadership에 대하여 더욱 잘 알게 되었고 이 봉사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비전트립은 네 번째 이었는데, 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매번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비전트립이지만 그때마다 한결같이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캄보디아 다일에서 섬김을 실천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고 보았던 그 느낌을 이번 비전트립에 참여한 친구들과 선생님들께서도 보게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마음 나누기 시간을 통해 많은 친구들이 고백하기를 캄보디아의 경험들은 사랑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 보람차다 하였고 밥퍼, 빵퍼, 설거지, 배 페인트, 환경 캠페인, 위생봉사 등을 하면서 봉사활동은 버거운 일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오히려 에너지를 주는 보람된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일행 모두는 이번 비전트립 기간 내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캄보디아 커뮤니티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사랑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시간들 중에 하나를 꼽자면, 일요일 예배시간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를 부르며 나를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예배시간동안 하나님이나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사랑과 힘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확신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번 비전트립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세계의 이웃

들을 섬기고자하는 굳은 마음으로 열심히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해주신 Jane Taylor 교감선생님과 Martha Pavao 선생님께 기쁜 마음과 사랑으로 동참해주시고 우리에게 servant leadership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전트립기간 동안 하나하나 작은 부분까지 챙겨주시고 돌봐주시고 조언해주신 이가영 주임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웃음과 기쁨을 함께한 비전트립 참여자분들과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와의 기억을 잊지 않겠습니다.

## Stony Brook in Cambodia

### Byeol Ellie Choi (The Stony Brook School Student)

The past week in Cambodia has been filled with so much joy and love. Total of 13 students and teachers of Stony Brook School, led by Ga-young lee staff went on this trip in the middle of June for a week in hopes of sharing God's love. In this vision trip, we aimed to further know what servant leadership is and participate in the Gods work taking place in DAIL community in Cambodia.

This particular trip was my fourth visit to Cambodia, but each time I gained and learned something different from the vision trip and each trip came as a new experience to me. However, one thing that remained the same through the different visits was the God's love evidently showing through his people in DAIL community of Cambodia, and it was my prayer that all the participants of the trip will find the same kind of love through this trip.

The experiences in Cambodia, as shared by many students, helped us realize that there is greater joy in giving love than receiving it. As we volunteered in making food, baking, washing dishes, painting ships, campaigning for environmental concerns, washing the kinds and so on, volunteering came to us as delightful work rather than burdensome task. We worked with alacrity each day, and love and desire to serve the community always outweighed fatigue and tiredness.



One of the most memorable time for me was Sunday worship. As we sang "He knows my name", I felt God reminding me of His infinite love, and my heart was filled with God's presence. We sometimes forget that our ultimate source of love and power comes from God, but I learned through this time, that it is imperative that we remind ourselves constantly, that our help comes from God and it is through Him that all things become possible. When we tell ourselves of this very truth, hope will arise in our hearts knowing that God's work will continue through His people.

I was very grateful for all the participants of this vision trip, for their strong desire of serving the neighbors all around the world. I especially thank Mrs. Taylor, Assistant

Headmaster and Mrs. Pavao, Foreign Language Chair, our SBS teachers who eagerly joined in the trip and showed so much love for doing God's work and exemplified servant leadership to us students. I also thank our leader, Ga-young lee staff a.k.a. "Ms. Lee", for carefully organizing every details of this wonderful trip and looking after each one of us and pouring wisdom. I will always cherish the memories of sharing much laughters and joy with the vision trip participants and the DAIL community of Cambodia.

**DAIL** 캄보디아다일공동체  
DAIL Community of Cambodia



## 캄보디아에 예쁜 여동생이 생겼어요!

마인표(The Stony Brook School 학생)

밥과 봉사를 마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들이 쫓아왔다. 알 수 없는 캄보디아 말을 하면서 우리를 뒤에서 때리곤 도망가곤 하였다. 아팠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오히려 친밀감의 표시라는 생각에 밥을 먹는 중간에 나가서 아이들과 놀곤 하였다.

벌써 1년 전 일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아서, 꼭 웃음이 새어나왔다.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가는 두 번째 비전 트립의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일 년 전 캄보디아는 나에게서 신선한 충격이었다. 김밥천국에 가서 치즈라면에 김밥 2줄을 시키고도 배가 고플 때면 편의점에 가서 소시지를 사먹는 나에게, 하루 한 끼 많지 않은 급식으로 끼니를 채우는 아이들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마저도 가족들과 나눠먹기도 하였다. 사실, 돌아와서 아동결연을 시작한 이유는 어떠한 책임감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놀던 이 아이들을 학교도 못 다니 채 근처 관광지나 마사지 가게로 내보내 하루 1~2불을 벌도록 만드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다. 실제로도 이번 두 번째 여정에서 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그러한 불우한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나이가 18세(한국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6학년인 경우도 허다하였다.

내가 후원하는 론 티어라를 보면서 무언의 뿌듯함을 느꼈다. 한 달 삼 만원으로 론 티어라는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일을 하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매우 기뻐했다. 센터 주변의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 봤을 때, “없다”고 대답하는 것이 대다수였다. 론 티어라도 현재로서는 꿈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론은 내가 론의 나이였을 때에는 상상도 못할 일을 겪고 있었다. 부모님께서서는 덕에 계시지 않았고, 무척 가난했다. 나의 삼만 원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함을 느꼈다. 이번에 론 티어라를 만나서 선물로 스케치북과 가방, 크레파스와 색연필을 사주었는데, 다행히도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듯 했다. 개인적으로는,

론이 좋은 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론 티어라와 처음 만났을 때에는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진짜 내 동생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센터 주변에는 아직도 학교를 못 다니고 돈을 벌러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고 한다. 마치 예전 한국의 50년대 60년대에 학생들이 학교를 못 다니고 집안일을 하거나 농사를 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내가 론 티어라를 후원하듯, 많이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에서 일하고 계신 다일공동체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I have a beautiful younger sister!**  
**In Pyo Ma (The Stony Brook School Student)**

Dail community ( Trip to Cambodia)

Kids chased after me while I was eating after I served a mael for children in the Babfor Center. Speaking Cambodian that I couldn't understand, kids hit me in the back and ran away. It hurt a little bit but did not annoy me. In fact, knowing that it's a sign of affection, I enjoyed it and even stopped eating and played with the kids.

Tee-hee, I giggled I couldn't believe that this was already a year ago. Waiting for my flight of the Second Vision Trip, I was too excited to keep myself calm at Incheon Airport.

Last year's experience in Cambodia had a huge impact on me. One of the ways my eyes were opened had to do with food. Because I usually get Cheese Ramen with 2 kimbabs at kimbabchunguk, and still eat sausages at 7-11 if I am still hungry just for one meal, I couldn't believe that these Cambodian kids only got one small meal per day. Some even shared that with their families. Actually, what motivated me to support a child through the Child Sponsorship Program was the responsibility I felt towards these kids. I felt guilty for letting the kids who had been playing with me to go nearby sights in Siem Reap(they sold souvenirs around Angkor) or massage shops to make 1 or 2

dollars a day. In fact, when I visited a local school during my second trip, there were some 6thgraders who were 18years old because of their poor background.

Looking at Lon Tiera, who I have been helping, I felt ineffable pride. My 30 dollars enabled her to go to school without any concerns and also prevented her from being used by adults to make money. When I asked kids around Dail center about their dreams, most of them answered that they do not have one. Lon was also one of them. Lon was going through some hardships that I couldn't even imagine when I was her age. Her parents weren't at home and her family was worn out with poverty. Once again, I felt thankful to God that my 30 dollars could change her life. I gave her sketchbooks, crayons, color pencils and a bag, and fortunately, she seemed to like drawing. Personally, I think she can be a good artist. When I first met her, I felt a little awkward, but later she felt like my younger sister.

Around Dail center, there are still some kids who can't go to school but work for their livings. These conditions are similar to those Korea faced during 50s or 60s when many students had to farm and help chores instead of studying. Just like I help Lon, I hope many more people can give dreams and hope to children.

Lastly, I would like to thank Dail Community worker's hard work in Cambodia.



<스토니브룩 고등학교 봉사단>

왼쪽부터 조현덕, 마인표, 이성원, 이성희, 최별, 배지훈, 송호준, 이웅재, 박현석, 최종현, 강제준, Jane Taylor, Martha Pavao

## 캄보디아 비전트립을 다녀온 선생님 인터뷰

송호준(The Stony Brook School 학생)



목욕 봉사에 참여한 Jane Taylor 교감선생님(우)과 Martha Pavao 선생님(좌)

**Q. 밥퍼 봉사를 하신 소감을 말씀해주시겠어요.**

테일러 선생님 (The Stony Brook School 교감 선생님)

저는 아이들이 먹는 음식의 질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 많은 어린 아이들의 위하여 밥을 만든다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느꼈습니다. 또한, 그들을 돕고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제게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Q. 봉사활동을 마감하고 나서의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테일러 선생님 (The Stony Brook School 교감 선생님)

우리는 다일 공동체를 통해 아름다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다일의 봉사자들은 권리를 박탈당하고 교육받지 못한 현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아이들과 부모들은 이 단체를 통해 하나의 구원의 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원의 줄은 그들에게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단체는 다음세대 젊은 일꾼을 키우고 캄보디아와 더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주의 의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페이보 선생님 (The Stony Brook School 여학 선생님)

캄보디아에서의 활동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다일공동체가 캄보디아에 조직되어 있고 이 단체가 아이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활동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섬기는 이들이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고 있으니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이 단체와 사역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먼 나라 미국에서 캄보디아까지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학교 학생들과 같이 봉사활동을 하시며 전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신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하여 스톤브룩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캄보디아에서 값진 경험을 쌓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Faculty's interview about the Cambodia vision trip**  
**Hojoon Brian Song(The Stony Brook Student)**

**Q. What are your thoughts about the Babfor ministry?**

Mrs. Taylor (Vice Principal, The Stony Brook School)

I am absolutely struck with the quality of the food. I know how hard it is to feed and make food for the children. I feel that I am gifted because I have so much. Also, I understand that it is a privilege to be able to serve and help out.

**Q. What is your general impression after the volunteer work?**

Mrs. Taylor (Assistant Headmaster, The Stony Brook School)

When we arrived at DAIL and got to see ministry that was going on, it was absolutely amazing to realize that they were touching the lives of people who are much disenfranchised and people who lack education. What I sensed that the people are getting from the organization children and their parents is the sense of hope. It gave hope that they can accomplish in their life. Also, it is very exciting to think that this is the next generation of young people that would be leading change in Cambodia and possibly even the world.

God is doing good things with the team that is working there.

Mrs. Pavao (Foreign Language Chair, The Stony Brook School)

It has been so amazing to be in Cambodia. I am very impressed with the organization that DAIL has formed here and the way that team works with the kids to provide such variety of foods and activities. It has been such a blessing that they have done it so professionally and in a godly way. So I am really blessed to see this organization and what it can do for Christ and his kingdom all around the world. Thanks for making us possible to come.

**Ending...**

Even though two teachers were from very different kind of environment, they did not show their tired face. It was very impressive to see them do the volunteer work without any complaint in such condition. The Stony Brook School students and teachers learned many valuable lessons through this Cambodia mission trip. Thank you.



# THE MIRACLE OF BOBFOR 7 MILLIONTH DISH



X

7,000,000



# 기적의 밥퍼 700만 그릇

기적의 700만 그릇을 기념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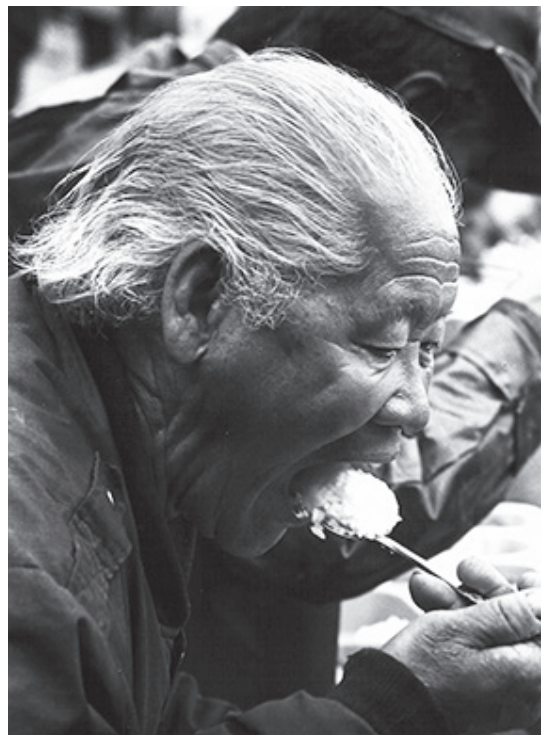
이지현(밥퍼나눔운동본부 부분부장)

26년 전 청량리역광장에서 함경도할아버지에게 사드렸던 설렁탕 한 그릇으로 시작된 밥퍼가 그 하나하나의 그릇들이 모여 어느덧 700만 그릇을 쌓게 되어 2014년 7월 7일 밥퍼 앞마당에서 700만 그릇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700만이라는 한 그릇 한 그릇 안에는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리고 그릇 마다 많은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하늘에 모시고 어르신들을 부모님 뵙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오신다는 서울메트로의 기관사님은 새벽근무를 마치고 달려오십니다. 10년 전 밥퍼로 신혼여행을 와서 감동을 주었던 부부는 매해 결혼기념일 마다 봉사를 왔고 이제는 세 명의 자녀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결혼 10주년 리마인드 웨딩으로 다시한번 신혼여행을 밥퍼로 와서 땀 흘리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25년 전 30대였던 새댁은 이제 할머니가 되어 봉사를 오시며 말씀하시기를, 쌍궁다리에서 칼바람이 불어오면 국을 퍼주면서도 손발이 너무 시리어 언발을 동동 구르고 눈물을 흘리며 배식을 하였던 옛날이 지금도 생각난다고 하십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불안함과 막막한 마음으로 이곳을 찾아왔던 봉사자는 정성어린 밥 한 그릇이 주는 감사와 감동으로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노숙인으로 생을 마감하여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봉사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700만을 넘어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밥으로 전하여지는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 그릇의 밥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삶을 나누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함께 삶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As we celebrate the miracle of 7 millionth dish...**

**Ji Hyun Lee(Babfor Sharing Campaign Headquarters)**

The bowl of soup served to the old man of Ham-kyeong-do 26 years ago, and the ramen noodles that the community shared with the neighbors formed pile after pile of dishes, and the piles grew into a heap of 7 million dishes. The 7 millionth dish will be served on July 7th of 2014 in Babfor center in Chyeong-Rhiang-Ri.

7 million itself is a giant number, but every dish shared in Babfor has its own story and love in it, similar to the saying that every grain of rice is reaped by the efforts of many. The operator of Seoul Metro eagerly comes after his dawn work to help in Babfor center, having in mind that he is serving his parents in Heaven through serving the elders of Babfor center. The couple who brought tears to many by coming to Babfor 10 years ago as their honeymoon helps the works of Babfor each year on their wedding anniversary. This year, they came to Babfor to celebrate their 10th wedding anniversary and to remind themselves of and to re-experience their marriage 10 years ago, and worked with much effort and love. One of the volunteers 25 years ago,

a new housewife in her thirties back then, now became an elder, and reminisced of the old times when Babfor used to serve meals in the twin underpasses. She remembered the shiveringly cold weather during winter times and how that harsh coldness brought tears to everyone who served the soup. The man who came to volunteer in Babfor with a heart overwhelmed by fear and uncertainty of the future after graduating from school now says that he gained courage and reason to hope as he served and helped the works of Babfor. There is also a volunteer who longs for his father who passed away as a homeless man.

7 million dishes came as they are through much love and stories of each dish. As we now aim for 10 millionth dish, or rather, the time when no one on earth will starve, we remind ourselves that each dish we serve is brought to the table by the life of many individuals. We sincerely thank everyone who participated in the works of saving lives through serving meals and made the work of Babfor as part of their lives. We continue to encourage everyone to be part of this great work of sharing love with the community, until there is no one on earth who will starve.





##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다일천사병원으로 감사하다는 편지 레터와 감사패가 도착하였습니다. 저희 다일 천사병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노숙인을 잘 돌보아주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입원해 계신 한국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섯 명의 미국인을 치료하거나 수술하거나 임종 때까지 돌보아 드렸습니다. 저희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여긴 일을 정말 보통일이 아니라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서신을 보내온 것입니다.

작년 10월 다일작은천국에 한국계 미국인 조\*\*님이 입소하셨습니다. 한국에 온 지는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뇌졸중으로 5년 전 오른쪽 편마비가 오면서 요양원 등을 전전하다가 가진 돈은 다 탕진하고 노숙인이 되었고, 어느 날 미국 대사관앞에 버려진 이후로 대사관에서 이곳으로 보내 지금까지 다일 천사병원과 다일 작은천국에서 자활치료를 받으면서 생활하시고 계십니다. 입소하신 이후 꾸준한 보살핌과 치료로 현재는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이지만 미국 국적이어서 복지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의료서비스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속에서 절망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던 조\*\*님... 한국에서의 불편한 생활과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미 대사관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버려진 노숙인 이라도 미국 시민권자라며 미 대사관에서 영사가 여러 번 찾아와서 확인하고 자국민을 끝까지 챙기며 돌보는 모습을 보며 한편 부럽고 또 한편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가 국내에 있든지, 해외 오지에 나가있든지 한 생명의 고귀한 인권을 생명 지켜주려는 사명감으로 더욱 큰 수고와 노력하는 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THE THREE QUESTIONS

세가지 물음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바로 지금 이 시간.

When is the best time to do each thing?

Who are the most important people to work with?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at all times?

The most important time is now,

The present is the only time over which we have power,  
The most important person is whoever you are with,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do good to the person you  
are with,

## 톨스토이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러시아어: Лев Николаевич Толстой,

영어: Lev Nikolayevitch Tolstoy, 1828년 9월 9일- 1910년 11월 20일)

러시아 소설가이자 시인, 개혁가, 사상가이다.

-

시 제공. 최별(Byeol Ellie Choi)

밥퍼는 000이다.

## 나에게 밥퍼는? '추억'

안녕하세요, 허은구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제강이라는 철강회사의 신입사원입니다. 지난 6월 10일은 저희 회사의 창사기념일이었는데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저희 신입사원 동기들과 함께 밥퍼(Bobfor) 봉사활동에 다녀왔습니다. 썩스럽지만, 짧게 후기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제게 특별한 한 분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분은 다름 아닌, 작년에 94세의 연세로 돌아가신 저희 증조할머니입니다. 20여 년 전, 제가 어렸을 적에, 밥을 안 먹겠다고 투정을 부리면 증조할머니는 물에 말은 흰 쌀밥에 김을 얹어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너무 어렸음에도, 그 때 먹었던 물에 말아먹었던 흰 쌀밥 맛이 참 선명하게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밥퍼에 와서 오전에 식사준비를 하고, 점심시간에 배식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유독 한 할아버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산 처럼 수북하게 쌓인 쌀밥을 허겁지겁 드시고 계셨습니다. 국을 다 드셨는데도 밥이 아직 한참 남아있자, 정수기에서 물을 두세 번 따라서, 식사를 계속하셨습니다. 흰 쌀밥을 물에 말아 드시는 모습에 저희 증조할머니가 생각나서 그런지 더욱 안타까웠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조할머니께서는 저를 참 각별히 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증조할머니는 언제나 저를 '우리손자, 우리손자'하며, 예뻐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치매증상으로 저를 볼 때마다 처음엔 저를 못 알아보셨지만,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다간 끝내 제 이름 세 글자를 기억해 내시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증조할머니를 다시 추억해 내는 것만으로 제게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고, 정신 없이 앞만 보며 달려온 것 같습니다. 밥퍼를 통해 동기들과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되어 기뻛고, 문득, 잊고 있던 증조할머니 생각에 저도 모르게 더 자극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밥퍼를 노련하게 이끌어주시는 많은 선생님들 덕분에, 힘든지도 모르고 즐겁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다음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01. 외교부

이름만 들어도 언제나 힘이 나는 우리의 친구, 외교부입니다. 이제는 어르신들도 외교부하면 최고야를 외칩니다. 따뜻한 미소로 언제나 솔선수범 앞장서는 대한민국 대표 기관, 외교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02. 국민카드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달려 오셨습니다. 국민카드 임직원 여러분입니다. 그들이 입은 노란조끼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것은 왜일까요. 밥퍼의 어르신들은 오늘도 그들의 친절한 미소에 응답합니다. 계속된 사랑 부탁드립니다!



## 03. 외환은행 나눔재단

언제나 묵묵히 밥퍼를 응원해주시는 빨간 앞치마의 천사들, 외환은행나눔재단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빨간 앞치마만 봐도 그들의 열정에 저희가 배워야겠습니다. 그들이 다녀간 날에는 밥퍼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외환은행나눔재단이 최고야!



## 04. 친애저축은행

오랜만에 찾아오셨습니다. 친애저축은행 직원 여러분입니다. 나눔과 봉사를 자신의 터닝포인트로 삼아 신뢰받고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다는 친애저축은행! 봉사는 삶의 에너지라 외치는 그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 05. SG&G

이제는 얼굴만 봐도 절로 미소가 납니다. 매달 찾아주시는 소중한 발걸음과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소매를 걷어 붙이고 열심히 움직이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배웁니다. SG&G가 최고야!!



### 06. 서울우유

밥피에서는 언제나 서울에서 먹는 우유가 최고입니다. 서울우유 직원 여러분들이 오시면 우리 어르신들, 절로 춤이 납니다. 항상 오실 때마다 뿌듯하고 하얀 우유를 전해 주시니, 생명이 더해지는 느낌입니다. 언제나 감사한 마음 깊이 전해 드립니다.



### 07. 매그나칩반도체

귀중한 손길과 발걸음으로 쉬고 싶은 주말에 달려와 주신 고마운 분들입니다. 매그나칩반도체 여러분입니다. 밥피에 와서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가서 그런걸까요. 그들이 돌아가는 발걸음이 마냥 가볍진 않았 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 주실까요?



### 08. 두원공과대학교

젊은 피의 기운이 밥피에 아직 감돌고 있습니다. 두원공과대 정보통신과 학생들이 봉사한 이틀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역시 젊음이 좋긴 합니다. 계속해서 찾아주 시면 밥피 식구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신규 후원들께 감사합니다.

신규후원회원명단 4.28-6.19

(주)동국제약, (주)리사코주얼리, 4/26하유로임오성환오해순 (성북동집), 강동식, 강영옥, 강제실, 강진숙, 강희정, 경주김형철, 고광진, 고영광, 공규연, 광아름다운연합교회, 권부자, 권상혁, 권용민, 권정은, 권혁기, 권혜진, 기동간, 길성현, 김갑배, 김강울, 김관수, 김기범, 김기철, 김도윤, 김명화, 김미성, 김미애, 김민서, 김병래, 김병곤, 김부용, 김상일, 김선정, 김세윤, 김순식, 김순애, 김승연, 김시우, 김연수, 김영진, 김용현, 김유정, 김윤희, 김은아, 김정림, 김정자, 김정훈, 김종수, 김주식, 김지성, 김예성(배영옥), 김지현, 김진완, 김진호, 김태은, 김태은, 김하경, 김하균, 김현호, 김희정, 나기열(박승철헤어), 나해철, 남원숙, 노정인, 대현교회, 동기영, 두원공대정보통신과, 류금미, 매그나칩반도체, 목사부인, 문선정, 문성우, 문현석, 문혜란, 박경돈, 박나래, 박래현, 박상모, 박선화, 박수현, 박승철, 대전산전, 박시호, 박정란, 박제연, 박준식, 박중화, 박지현, 박진홍, 박해자, 박현희, 박혜란, 배근우, 배소영, 배예슬, 백우현, 백현하, 변리리, 변해순, 사근모임, 사회복지법인청광, 서문영, 서범석, 서성식, 서울메트로선교연합회, 서울아카데미, 서판일, 선병석, 설상동, 성광교회유치부, 성수정, 손주연, 손지희, 손현이, 송미향, 송병관, 송순미, 송은혜, 송효성, 송효정송흥섭, 수원중앙침례교회신동옥, 신정혜, 신현숙, 신현숙, 신현형, 신혜정, 심진희, 아사모, 안문자, 안소영, 안현순, 양은경, 양춘연, 어수안, 엄지혜, 엄현, 영암교회유상진, 예향주형호, 오나연, 오민숙, 오선영, 오선희, 오은경, 오창화, 우동욱, 유다희, 유미자, 유지은, 윤명자, 윤수영, 윤순심, 윤신애, 윤옥주, 윤은경, 윤채찬, 윤호기, 윤홍구, 은평, 이고운, 이금수, 이기쁨, 이기환, 이명순, 이명진, 이미옥, 이민아, 이범식, 이범식, 이부향, 이상우, 이상준, 이서하, 이선경, 이세영, 이순애(이진호), 이영식, 이영신, 이영해(박명환), 이용우, 이용재, 이용준, 이윤호, 이은주, 이장호, 이재완, 이정민, 이정호, 이종락, 이지숙, 이지윤, 이진숙, 이태희, 이하늘, 이한나, 이해슬, 이호일, 이호진, 이희권, 일산하나로클럽, 임면수, 임미령, 임보선, 임소연, 임영주, 전미영, 전성은, 전성희, 전승현, 전주덕일교회청년부, 전지혜, 전하늘, 한이음, 정경석, 정다영, 정다영, 정달영, 정상민, 정성희, 정수미, 정윤희, 정은경, 정재원, 정지욱, 정한남, 정형석, 정효정, 정희숙, 제사를위해기도합니다, 제시힘내, 조민영, 조상희, 조용선, 조은성, 조정순, 조현우, 주재철, 진달래, 진현지, 차예현, 청호나이스(주), 최경선, 최기연, 최동훈, 최동훈, 최명규, 최미자, 최연희, 최영숙, 최영숙, 최용백, 최용욱, 최장희, 최재우, 최지원, 최희자, 최희정, 탁정연, 탑푸드뱅크, 편숙희, 한기호, 허은진, 현대글로벌비스경매장, 황한나

##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신규 후원들께 감사합니다.

### 네팔다일공동체 5.1-6.20 후원자명단

Decpak lama, Exodus Himalayan, Gamver banadur thapa, X-cellent, 김장민, 김현정, 너이나, 네팔다일공동체 어린이 예배, 디떡, 무나, 무명, 벽산직업전문학교 대표, 진희철, 부먼 팀 세나, 비마야, 영신물산, 영암교회, 이규형, 이백석, 정민혜, 제이스, 짜니마야,

### 다일작은천국 5.1-6.20 후원자명단

(후원금-만사후원) CJ, 프레시웨이, 김기철, 김지현, 문성우, 박래현, 박정란, 박진홍, 산림청, 산림청(김경희), 산림청(박래현), 송홍섭, 신동욱, 신부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남기풍), 안소영, 안소영, 여운정, 오나연, 오나연, 이상준, 이영민, 이주희, 장해님, 정경자, 조계향, 조수민, 차인기, 한우리교회(5여전도회), 한주희 (후원금품), 게스트하우스 순살치킨 11box, 김수민실장 생닭 60kg, 김양국님 양식굴외 30kg, 뉴월드(평화시장) 조기 및 반팔티, 박문정님 생활용품외, 산림청 물티슈외 생활용품, 서울시노숙인협회 치약외 생활용품, 소망교회 단팻빵 및 쥬스, 신용보증기금 주방생활용품, 오장오님 쌀20kg x 5포, 채움터, 한우잡배 300kg

### 다일천사병원

시온메디칼(약봉투), 어린이의약지원본부 (의약품), 연세속편한내과, 초이스이비인후과, 칸비노기과, 하나안경1건, 한국팜비오(의약품), 협력병원,

### 밥퍼나눔운동본부 5.1-6.20 후원자명단

(신규후원자) 강진숙, 고은영, 공규연,곽성우,기동간,기현수,김기범,김동완,김미선,김미성,김민서,김민우,김복용,김상일,김선정,김성태,김세윤,김승연,김연수,김예성,김용대,김은희,김중채,김지성,김진금,김진호,김태형,김하경,김하균,남원숙,류금미,박기정,박소희,박제연,배근우,백지윤,송미향,송범,송현이,신혜련,오선영,오유진,윤상돈,윤수영,윤신애,윤은경,윤재찬,윤현진,윤현진2,윤호기,윤흥구,이명순,이명진,이범식, 이병철, 이상은, 이선경, 이수연, 이영아, 이용준, 이욱현, 이일숙, 이종대, 이종해, 이주연, 이지윤, 이태희, 임면수, 임미령, 정상인, 정수미, 정영희, 정은경, 정한남, 조은성, 조준래, 조현오, 진현지, 최승호, 최유진, 최진수, 최희자, 탁정연, 한정현, 황경진

(후원금) KB국민카드, RGA, 강은국, 경희유치원 꿈초롱클럽, 공무원 연금공단, 광 아름다운연합교회, 종교등부, 광현교회, 구미 목장교회, 국방홍보원, 국순애, 권부자, 권정옥, 권혜진, 김갑배, 김미애, 김은정, 김재하, 다우캐미칼, 대림CNS, 대한주정판매(주), 대한지적공사, 동부메탈, 동원교회 종교등부, 두원공대 정보통신과, 러시아캐시, 매그나칩, 반도체, 반디봉사단, 밥퍼사랑나눔행복나눔, 삼성서울병원, 서리차드, 서울메트로(기독교연합회), 서울석유, 서울아카데미, 소망교회, 수도권산악회 4050, 신민숙, 양현재단, 에스지엔지, 에이엠지코(주), 옥합 선교교회, 윤현숙, 이강열, 이다인, 이동원, 이영기, 이영희, 이일욱, 이종욱, 이형선, 이희숙, 장문성, 장은하, 전하늘, 한이음, 정신남, 정태심, 조현숙, 최경근, 최달선, 최영미, 최자희, 최주영, 최희정, 캘스키드스, 하울모임, 한국목



# THANKS

# TO

사부인 선교합창단, 한국허벌 라이프,한기호,홍경화,홍의숙,황재,황중철

(후원물품)김경자 숙주 6box,김명순 봄나물 1박스,김재호 고사리 4관,다일교회 요구르트, 양파 10망,동화세상 에듀코 쌀 40kg,드림재단 빵 6400개,따스한 채움터 소잡빠 386kg무명쌀 100kg,문형숙 쌀 20kg,박철한 쌀 40kg,뷰티플 마인드 쌀 300kg,서울우유 우유 6048개,성신여고 쌀 160kg,엘케이인포 쌀 20kg,영란여중 계란 900개,이숙중 고사리 1관,이승숙 김치 5kg,잠신고 어머니회 갖김치, 간장계장 27box,췌친환경 사업단 콩나물 20봉, 처갓집 양념통닭 미트파이 10,태진인터내셔널 쌀75kg,파스퇴르 그릭요거트 576개,파스퇴르 동대문지점 우유 700개,한일 이화 쌀 1000kg,한전KDN 온누리상품권 200만원,황중철 쌀 200kg

**베트남다일공동체 4.29~6.20후원자명단**

LOSCO,MAX VINA,MAX VINA,THANH CONG ,THANH CONG ,VEGAS,기업은행,기업은행,김찬,다비 CJ,닥터카, 대우인터내셔널,대우인터내셔널,대장금,롯데리아,롯데리아,배준익,서진,진영,김승민,승준,최기흠,해인,해린,사이공한인연합교회,사이공한인연합교회,신한베트남은행 호치민지점 심재호,CHUNG,아리랑화학,아산상선,아산상선,온누리중고등부 1학년일동,포스코SOUTH ASIA,포스코SOUTH ASIA, 포스코베트남,한,베기업인협의회 코베아골프동호회,한동 이엔씨,호치민CBMC,호치민중앙교회,호치민중앙교회, 호치민한인회여성

자원봉사단

**중국다일공동체 5.1-6.20 후원자명단**

권윤경 ,김광호 ,김성재,리세봉,애심떡집,양자선교회(대표 허에스더),이숙의,이애리,창업협회,한용수,홍십자,훈춘시 교육국,훈춘시병원,훈춘시부련회,훈춘애심 지원자 단체

**캄보디아다일공동체 5.1-6.20 후원자명단**

**탄자니아다일공동체 5.1-6.20 후원자명단**

Corwin & Marilyn Edwards,김기태,김성경 ,신유용 ,유재은

**필리핀현지후원금5.1~6.19 후원자명단**

Jean M Omilig,김민자,님뽕팀,문영희,성민교회 청년팀, 오주옥,이명현,이부향,최연희,추고은,해피드림교회

**제시 긴급후원금**

강제실,경광현,김순식,김영철,김은아,무명2,박종도,사근모임팀,서울다일교회청년부,서주환,설상동,신광숙,아사모팀,영암교회,이부향,이숙의,최연희,최지원,편숙희,필다일어린이예배

#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만원의 행복(월 1만원)	밥퍼나눔운동본부, 천사병원을 비롯하여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후원입니다.
1:1 해외아동결연(월 3만원)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통하여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해외 아동과 결연을 하시면 결연 아동의 소개서와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밥퍼 365(월 36,500원)	365일 밥퍼와 함께하는 마음을 담은 국내외 무료 급식을 위한 후원입니다.
전세계 밥퍼 1일 배식비(700만원)	노숙인 및 무의탁 어르신들께 하루 진지를 대접하는 후원입니다.
다일천사후원	다일 공동체의 의료지원사업(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해외 보건의료사업, BCP 등)을 위한 후원입니다. 1구좌 104만원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일평생천사후원	다일 공동체의 중장기 비전을 위한 후원입니다. 1구좌 1,004만원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분원 (예금주: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캄보디아씨엠립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65
	캄보디아프놈펜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78
	베트남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94
	필리핀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81
	중국 다일공동체	기업은행	017-033086-01-021
	네팔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5744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233964
	우간다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231436

다일복지재단 후원방법 안내	<b>1. CMS(자동이체)</b>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 주시면 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b>2. www.dail.org에 접속하시면</b> 신용카드 및 다양한 방법으로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후원금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일공동체 후원신청서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 후원내역

- |  |  |
|--|--|
| <input type="checkbox"/> 만원의 행복(월 1만원) _____구좌         | <input type="checkbox"/> 1:1 아동결연(월 3만원) _____아동 |
| <input type="checkbox"/> 밥퍼365(월 36,500원) _____구좌      | <input type="checkbox"/> 전세계 밥퍼 1일 배식비(700만원)    |
| <input type="checkbox"/> 다일천사후원(1구좌 100만원) _____구좌     |  |
| <input type="checkbox"/> 다일평생천사후원(1구좌 1,004만원) _____구좌 |  |

## 후원회원 정보

이름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기재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연락처 \_\_\_\_\_

SNS 수신동의

이메일 \_\_\_\_\_

주소 \_\_\_\_\_

우편물 발송  우편물 미발송

## CMS 자동이체 동의서

출금은행 \_\_\_\_\_

예금주 \_\_\_\_\_

계좌번호 \_\_\_\_\_

이체 희망일  5일  15일  25일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_\_\_\_\_

후원 회원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기재해 주세요.

본인은 다일복지재단의 CMS 출금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후원금을 납부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본인이 지정한 은행계좌에서 다일복지재단으로 지정 출금일에 출금하는데 동의합니다. 만일 출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일복지재단과 조정하여 금융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서명)

◇ 위 내용은 후원자 정보 등록 및 연말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보내시는 분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

발송유효기간  
2014.02.14 ~ 2016.02.13

---

동대문우체국승인  
제40242호

**DAIL** 다일공동체  
DAIL community

130-8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립대로 57 다일복지재단 6층  
회원안내 | 02.2212,8004 팩스 | 02.2243,8005  
홈페이지 | [www.dail.org](http://www.dail.org)

## 다일영성수련

# DAIL SPIRITUALITY TRAINING

### 1단계

158기 8월 11일 (월) ~ 8월 14일 (목)

159기 9월 22일 (월) ~ 9월 26일 (금)

### 2단계

45기 7월 21일 (월) ~ 7월 25일 (금)

46기 8월 18일 (월) ~ 8월 22일 (금)

### 3단계

17기 7월 28일 (월) ~ 8월 02일 (토)

### 청소년기 12기

16기 8월 04일 (월) ~ 8월 07일 (목)



내 인생에서 못해본 여행이 딱 두가지 있다. 신혼여행과 우주여행. 신혼 여행이 얼마나 멋진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다일공동체에서 경험한 영적 우주여행, 1단계 아름다운 세상 찾기라는 영성 수련은 여태까지 내가 한 여행중에서 가장 멋지고, 황홀한 여행이었다.

- 한비아 (전 월드비전 구호 팀장)



4박 5일의 시간이 제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됐어요. 창조의 질서가 보여서 참 신기하고 놀라웠죠. 사실을 보는 힘, 진실을 아는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온몸으로 느낀 것 같아요. 그 진실이 보이니까 제 자신과 예수님이 보였던 것 같아요.

- 류승완 (영화감독)



대표 | 최일도 목사  
서울 다일 교회 담임  
다일 공동체 대표  
다일 복지 재단 이사장  
한동대학교 겸임 교수

### 설곡산 다일 공동체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 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 마감하여, 수련비 입금(농협 355-0022-4654-93 | 예금주: 다일 공동체)으로 등록 완료됩니다. 영성수련은 한 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 031-585-2004  
M. 010-7756-8004  
H. [www.dail.org](http://www.dail.org)

밥퍼목사 최일도의 신간

# 칠년을 하루같이

7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편지를 쓰고  
2,555통의 고백을  
뜻과 정성 다해 부쳐  
독자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감동 휴먼 스토리



금년 7월부터 전국 유명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